

[ 트렌드 & 스타일 ]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풍조가 신세대 부부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자아이의 출생비율이 높고 있는 추세여서 지난 28일 조선대병원 신생아실의 경우 20명의 신생아 중 여아가 11명으로 남아보다 더 많았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 키울수록 행복하다 ‘딸·딸’이 아빠 만세

딸 둘에 아들 하나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아들은 낳을 때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동포 된다

지난 21일 둘째 딸을 낳은 결혼 6년차 주부 서은향씨(32·광주시 북구 두암1동)는 요즘 마냥 행복하다. 산전 건강진단에서 병원측으로부터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어렵게만 전달받았을 때만 해도 ‘둘째까지 딸이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이같은 걱정은 남편의 한마디로 사라졌다. 남편 왈 “나는 딸이 좋아”  
한국사회를 짓누르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이전 오히려 ‘여아선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불과 3년전인 2004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첫아이의 남아와 여아 출생비는 103대 100, 셋째아이로 가면 무려 127대 100으로 남아아이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들어 완전히 역전됐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를 놀라웠다. 1996년 처음 시작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2천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였다.

### 30대 ‘딸이 좋아’... 남아선호 역전

조사 문항 중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할 경우라면 남녀 아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8%만이 남아아이를 갖고 싶다고 답했다. 96년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0.4%였고, 2001년엔 31.2%였다. 반면 여자아이를 원한다는 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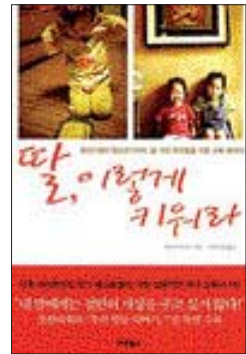
96년 9.8%에서 2001년 10.9%, 지난해에는 16.1%로 늘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남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59%였다. 꼭 사내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에서는 남아와 여자아이의 선호도가 역전됐다. 자식을 하나만 낳는다면 남아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은 17.3%인 반면 여자아이가 좋다는 사람은 21%였다. 결혼을 앞둔 경우가 많은 20대에서는 남아아이 18.2%, 여자아이 17%로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여자아이(9.9%)보다 남아아이(35.9%)를 더 원하고 있었다.  
30대에서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키우는 재미’가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커진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에서도 노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녀 또는 자녀의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은 정부나 복지기관에 의지하겠다는 응답보다도 적었다.  
이같은 세대를 반영하듯 아들만을 찾는 사람들을 비꼬는 유머도 유행중이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지면서 대도시 지역 40, 50대 주부 사이에서는 ‘장가간 아들 시리즈’처럼 여아 선호 세대를 반영한 유머가 유행하고 있다. 초기 시리즈 중 대표적 유머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 장가들면 사돈이 된다는 것. 최근에

는 ‘아들은 낳을 때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동포가 된다’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유행이다.

### ‘출가외인’은 옛말

3대 미친여자 시리즈도 유행한다. 첫째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둘째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고 가장 중증의 셋째는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라는 내용이다. 딸과 아들을 비교한 올림픽 시리즈도 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불린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사람의 옛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단상,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엔 아들은 큰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다.  
광주 자모병원의 경우 6월 한달간 출산한 산모는 모두 19명, 이중 13명이 딸이었고 6명은 6명에 불과했다. 김은아 간호과장은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산모들이 아들보다는 딸을 원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딸을 낳은 산모들이 둘째도 딸을 원하는 경우마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 딸 키우는 부모 위한 7가지 전략 자신의 딸을 믿고 알아서 하게 맡겨라



딸, 이렇게 키워라  
비바라 마코프 지음  
오한숙씨 옮김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딸이 자라고 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야기만 나와도 딸 가진 부모의 가슴은 마구 뛰든다. 내 딸이 혹시 남자처럼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날이 갈수록 험한 환경에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을까 노심조사한다.  
어떻게 하면 딸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행복하게 딸을 키운 저자의 7가지 전략이 해답을 제시한다.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거칠어!” “그 장난감은 여자애 갖고 놀면 안 돼!” 딸을 키우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저자는 먼저 ‘딸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똑같은 딸의 행동을 아들과 비교한다.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고 또 고치려 든다. 저자는 “딸이 원한다면 뛰든가 해보게 하라”고 말한다. 부모는 딸이 여성으로 커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딸들은 완벽한 소녀가 되려는 주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자란다. 완벽한 소녀란 늘 조용하고 자기절제를 잘하며 말이 없다. 또 요란하지 않고 뻘서 있으며 잘난 척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다. 발만다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제 생각은 달라요”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면 친구관계가 위태로워지리라 생각한다. 부모가 진심으로 믿고 들어줘야 딸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세상이 험하다는 이유로 딸을 온실에서만 키울 수는 없다. 딸이 정말 안전하려면 어디서든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딸들은 자라면서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여성성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즉 딸은 아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지 못한다. 세상을 탐구할 기회가 아들보다 적고, 유괴나 성희롱 등 나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딸에게 필요 이상의 도움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들보다 많은 자립심을 키워줘야 한다. 어찌 보면 딸의 독립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의 총포화 아니냐 두려움에 떠는 부모일지도 모른다.  
딸의 롤모델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업적과 의견, 부드러움, 자기만족, 독립성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여성들을 보며 자라나며 따라 할 장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멋진 여성들을 보여줘야 한다. 멋진 소녀와 훌륭한 여성들은 의외로 많다. “애들아, 이리 와서 이 기사 좀 봐라.” 한 엄마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여성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열두 살, 아홉 살 딸을 불러 기사를 소리내어 읽어준다. 그런 과정을 통해 딸들은 자연스럽게 훌륭한 여성을 닮아간다.  
1998년 개정판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번역자의 실제 생활 이야기와 주변의 생생한 교육 체험기가 맛을 더한다.  
가야북스 펴냄 / 360쪽 / 1만200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효성공인중개사', '알파공인중개사', and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ies for sale or rent.